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4일 화요일 음 2월 23일(조금)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0/21℃
모레	흐림	8/15℃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 낮 최고기온은 15~27℃로 예상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뜸 06:46 / 해짐 18:40	달뜸 00:25 / 달짐 10:27
물때	만조 02:56 / 14:25	간조 09:30 / 21:27

식중독지수 관심 / 감기가능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오스카 다큐상 주인공 '푸틴 최대 정적'

나발니 독살 시도 사건 다뤄

수상 소감 밝히는 율리야 나발나야. 연합뉴스

러시아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47)의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발니'가 12일(현지시간) 제95회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하면서 그의 정치 역정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나발니는 2020년 비행기에서 독극물 중독으로 쓰러지며 일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다.

당시 그는 기내에서 소련 시절 개발된 군사용 신경 작용제 '노비촉' 계열 독극물에 중독돼 쓰러진 뒤 독일로 이송돼 치료받았고, 2021년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나발니는 현재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230㎞ 떨어진 도시 블라디미르 내 감옥에 수감돼 있으며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카데미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나발니'도 독살 시도 등 나발니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을 실감나게 다루고 있다.

나발니의 아내 율리야 나발나야는 "내 남편은 진실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당신과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질 날을 꿈꾸고 있다. 내 사랑, 힘을 내길.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이 윤 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제주 초지이용과 보호

송 관 필
농업회사법인 제주생물자원(주) 대표

제주의 초지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금은 숲이 우거져 높은 곳을 올라도 바다가 보이는 곳이 많지 않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계곡과 일부의 '곳'을 제외하고는 조금 높은 동산이나 오름에 올라가면 멀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시원한 섬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주변의 초지와 관목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우리 선조들은 초가지붕, 곡식이나 소먹이를 쌓아둔 곳의 지붕, 우비, 새끼줄 등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 띠밭을 가꾸고 관리했다. 또한 제주는 말, 소 등의 방목이 800여 년 전에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넓게 초지를 목장으로 이용했고 진드기 등의 해충구제와 신선한 풀을 얻기 위해 불을 놓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학제품과 농업, 건설장비의 발달로 생활패턴도 바뀌게 되는데 집에서 농사를 위해 키우던 소를 없애면서 공동목장에 대한 이용률이 낮아지고 불 놓기가 금지됐으며 조림이 이루어지면서 초지는 점점 축소됐다. 또한 초지개량사업을 통해 목초가 재배되면서 자연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됐다. 이것은 초지를 이용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반으로 작용했고 개발과정에서 주변의 숲, 곶자왈 등이 훼손되면서 환경보전단체와 개발단체가 대립하는 빈도가 많아졌다. 이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거의 초지이용은 소극적이고 자연친화적이지만 최근에는 건설장비와 건축기술이 향상으로 환경훼손이 많은 적극적인 토지이용을 하고 있다. 적극적인 이용은 주변 환경의 훼손과 일부 복원이 발생하는데 이때 복원은 본래 상태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의도에 맞게 인위적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과 괴리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현재 초지에 대한 보호등급이 낮게 평가되고 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모든 초지가 개발의 압박을 받고 있다.

상상해 보자. 초지에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가정한다면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 제주 면적의 80%가 중산간지대 이하가 차지하는데 이 중 30%를 초지라고 가정하고 20%에 건물이 들어서면 우도 면적의 13배가 콘크리트로 채워진다는 얘기가 된다.

개발 대상지 삼고 있는 자연초지에는 잔대, 삽주, 애기우산나물 등 100종이 넘는 생물들이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생물다양성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초지는 개발 1순위 지역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 등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이용해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매수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를 통해 자연초지를 비롯한 제주의 생태계를 유지·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열린마당

시대와 함께 성장할 기회, 제주시 여성대학

김 현 지
제주시 여성가족과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1세기 문맹인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배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배움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해 나갈 방법으로 제주시 여성대학을 소개한다.

올해로 제23기를 맞는 제주시 여성대학은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우수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자 1999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154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지역사회에서 여성리더로서 자질과 리더십을 발휘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제주시 여성대학은 기존의 육아와 가정에 충실했던 삶에서 벗어나 다시금 '나'를 찾는 주체적이고 주도적 삶을 구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제23기 제주시 여성대학 접수 과정을 보면서 큰 도전과 밝은 미래를 보았다.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해 주셨고 업무를 위탁받은 제주대학교평생교육원 측에서도 과목선정과 강사선정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신청하신 분들이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제주시 여성대학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과 다양한 교육 제공으로 지역사회를 리드하고 공동체 실현의 역할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건조주의보에 관하여

조 상 연
제주소방본부 예방대응과

건조주의보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날씨 경보 중 하나로 식물이나 나무, 잔디 등 자연환경에 대한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다.

건조주의보는 지역적인 화재 위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발령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건조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주민들은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화기나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작물이나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건조한 기간에는 대기 중 먼지나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수분 을 주기적으로 섭취해 몸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고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 등을 통해 생활하는 공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주는 것이 좋다.

건조주의보 기간에는 산불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간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피난시설이나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 및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대피 후 빨리 119에 신고하여야 한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조주의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면 필요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화재 예방과 더불어 이웃과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아스미 6년생
·한라봉 2,3년생 ·황금향 2년생
·궁천 3,5년생 ·하례조생 4년생
·레드향 2,3,5년생 ·레몬 4년생
·천혜향 2년생 ·탱자묘목 2,3년생
·하귤 4,5년생 그외 다수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석 파 농 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010-2699-2355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종묘 공급]
포트묘란? ▶ 잔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 미수익시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잔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귤 / 금귤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장원농장 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 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2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1년생
● 미니향 3년생 ● 레몬 4년생,
● 제라몬 3년생 ● 미니몬 1년생
● 하귤(아마나스)1~2년생
※ 극조생 &조생
● 궁천조생 1~4년생 ● 유라조생 1~2년생
● 하례조생 2년생 ● 오하라베니와세 1~2년생
● 히노아까리 4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하귤, 천혜향, 오하라베니, 제라몬, 미니몬,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325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 -1082